

## 다큐멘터리에서 모큐멘터리까지

유 현석,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다큐멘터리의 기원은 영화의 시작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Lumiere) 형제가 파리에서 개최한 첫 영화 상영회에서는 <뤼미에르 공장의 출구>, <기차의 도착> 등의 활동사진이 상영되었다. 같은 해인 1895년 르노(Felix-Louis Regnault)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에 소개된 세네갈 여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다. 사실적인 모습을 담은 이러한 당시 영상물은 다큐멘터리의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픽션과 논픽션 영화의 구분은 점차 뚜렷해 졌다. 1920년대 들어서는 <달나라로의 여행>과 같은 픽션영화가 등장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동일한 시대에 플래허티는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지칭되는 <북극의 나누크>를 선보였다.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픽션영화와 다큐멘터리는 서로 다른 장르의 영상물이었지만, 인지도와 관객의 호응에 있어서 상호 공존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1940년대 할리우드 영화시스템이 확립된 후, 전 세계는 픽션영화의 열풍에 휩싸였다. 특히 유럽의 영화산업이 무너진 1980년대 이후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영화산업은 스타시스템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영화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다큐멘터리의 귀환이다. 오랜 기간 동안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 장르로 인식되었고 영화계에서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 미니시리즈에 밀려 변방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큐멘터리는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국내 방송의 경우 KBS가 2007년 <차마고도>를 방송한 이후, 2008년 MBC <북극의 눈물>, 2009년 KBS의 <누들로드>에 이르기 까지 대형 다큐멘터리가 속속 제작되고 있다. 영화계에서도 2006년 <비상>이 2만5천명으로 다큐멘터리 흥행 기록을 갱신한 후, 2007년 <우리학교>가 6만명의 관객으로 1년 만에 기록을 갱신했으며, 2009년에도 <워낭소리>가 200만명 이상의 관객동원으로 다시금 다큐멘터리 흥행기록을 갱신했다.

다큐멘터리의 인기를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최근 들어 텔레비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나 모큐멘터리(또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이다. 이들 영상물은 '리얼리티'나 '다큐멘터리'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다큐멘터리 장르와의 유관성을 판매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다큐멘터리의 개념과 장르의 특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장르의 변화를 꾀했고(Corner, 1996; Winston, 1996; Hughes, 1996), 최근에는 방송편성의 변화와 매체융합 현상에 맞추어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다큐소프(docu-soap)와 같은 다큐멘터리에 그 뿌리를 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장르가 다른 영상 장르와 비교하여 우위를 갖는 부분은 기록된 내용(이미지와 소리)이 현실(reality)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적어도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가정에서이다. 리얼리티는 관객들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즉, 다큐멘터리는 드라마와 같은 픽션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과 달리,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영상물로 인식된다.

1930년대 다큐멘터리의 이론을 정립한 최초의 인물인 그리어슨(Grierson) 역시 다큐멘터리는 픽션영화에 비해 우월한 장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다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큐멘터리와 픽션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큐멘터리의 자연발생적인 재료(natural material)를 다룬다는 점을 들었다 (Corner, 1996:12).

그렇다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현실’은 왜 픽션에 비해 우월한 범주에 속하는가? 라는 질문이 남는다. 이는 현실이 곧 진실(truth)이란 인식에서 기인한다. 픽션영화와 달리 관객들은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현실은 실재 일어난 일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기에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 믿는다.

윌리엄스(Williams, 1976)가 말하듯, 18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객관성의 개념은 결국 ‘사실(fact)’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되었다. 과학과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사실’은 또한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증거(evidence)’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주관적인 해석에서 벗어난 진실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영상은 관객들에게 하나의 사실로 인식되면서, 다큐멘터리는 진실을 알려주는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설혹 지구의 크기를 안다고 하면 과연 지구에 대한 전부를 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지구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회전속도를 안다고 해도 역시 지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다큐멘터리 속의 현실이 진실의 일부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제작 철학과 방식으로 다큐멘터리에서 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첫째,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차원의 진실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다큐멘터리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론적 기반과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문에서는 키노아이, 시네마 베리테, 그리고 자아성찰적 다큐멘터리에서 추구했던 진실의 개념과 이러한 주류 다큐멘터리와 최근 유행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모큐멘터리 그리고 다큐소프에서 추구하는 진실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사실적 프로그램(factual program)의 본질과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Corner, J. (1996). *The Art of Reord: A Critical Introduction to Documenta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Flaherty, F. (1958). *Robert Flaherty: Explorer and Film Maker' Mime graphed*. New York: Hasting House
- Grierson, J. (1946). Postwar Pattern *Hollywood Quarterly* 2. 159-165.
- Williams, R. (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na.
- Winston, B. (2008) *Lies, Damn Lies and Documentaries*.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